


 		보 도 자 료	
 		배포일시	2018. 9. 7.(금) / 총 4매(본문 4)
 			
 			
담당 부서	4차위 지원단 기술산업팀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화기획과 기획재정부 혁신성장본부 대구광역시청 스마트시티조성과 시흥시청 정보통신과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스마트시티사업단		
보 도 일 시		2018년 9월 10일(월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9. 9.(일) 11:00 이후 보도 가능	

국회 · 중앙정부 · 지자체 · 공공기관
‘스마트시티 실증도시 성공’ 위한 첫걸음 내딛어
- 혁신성장 8대 핵심 선도사업 중 하나인 스마트시티 사업화 모델 개발 추진 -

- 지난 7월 스마트시티 혁신성장 동력 연구개발 실증도시로 선정된 대구광역시 및 경기도 시흥시의 원활한 연구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, 공공기관 등 7개 기관이 손을 잡았다.
- 국토교통부, 과학기술정보통신부, 기획재정부 등 중앙정부와 실증도시로 선정된 대구광역시, 경기도 시흥시 등 지자체는 지난 7일(금), 스마트시티 혁신성장 동력 연구개발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.

- 이날 체결식에는 손병석 국토교통부 제1차관, 민원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, 고희권 기획재정부 제1차관, 권영진 대구광역시장, 임병택 경기도 시흥시장, 손봉수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원장, 대통령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.

- 특히, 실증도시로 선정된 지역의 정종섭(조선, 대구 동구갑) 국회의원이 참석하여 실증도시의 성공을 위한 국회 차원의 지원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.

□ 스마트시티 혁신성장동력 연구개발 사업은 올해부터 '22년까지 5년간 총 1,159억 원* 규모의 연구비를 투입하여 세계선도형 스마트시티 모델을 개발해 실제 도시에 적용시키는 연구 사업이다.

* 국비 843억 원(국토부 453억 원, 과기부 390억 원), 민간 267억 원, 지자체 49억 원

- 새롭게 개발될 스마트시티 데이터 허브 모델은 빅데이터, 인공지능, 디지털 트윈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로 구현될 예정이며, 교통·안전 등 도시의 문제를 해결하고,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리빙랩을 에너지·환경 분야에 직접 적용할 계획이다.

□ 지난 7월 실증도시로 선정된 대구광역시 및 경기도 시흥시는 지역거점의 데이터센터를 구축해 혁신성장에 적합한 스마트시티 데이터 허브 모델**을 직접 구현하고, 도시에 적합한 각종 스마트시티 서비스를 시민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 및 기술생태계를 구현할 예정이다.

** (데이터 허브 모델) 도시 인프라 및 시민으로부터 수집되는 각종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여 필요한 정보로 재생산하는 '도시정보 통합관리 시스템'

- 대구광역시는 교통, 안전, 도시행정 분야의 연구 수행을 통해 대중교통수단 부담률을 현재 21.9%에서 32.4%로 높이고, 5분 이내의 사고현장 평균 도착률을 현재 29.3%에서 90%로 향상시키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.

- 경기도 시흥시는 시민 참여기반의 환경, 에너지, 생활복지 분야의 연구수행을 통해 미세먼지 5 μ m · 초미세먼지 2 μ m 이상 저감, 가구 전기요금 20%, 시설물 전기요금 10% 이상 절감시키고, 독거노인 및 치매노인 토탈 케어와 장애인 생활권 보장, 그리고 관련 산업육성 및 비즈니스 창출 등의 목표를 제시했다.
- 이번에 체결된 업무협약에서는 스마트시티 혁신성장동력 연구개발의 효과적인 추진과 실증도시의 성공적 연구 여건 마련을 위해 각 주체가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.
- 국토교통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개발의 주무기관으로 추진계획 수립, 사업의 관리를 위한 행정지원을 담당한다.
- 기획재정부는 스마트시티 활성화를 위한 주요 정책의 협의·조정, 규제 및 제도 개선 등 지원 방안을 검토한다.
- 또한, 대구광역시 및 경기도 시흥시는 실증도시 시행 주체로서 연구 추진을 위한 기술검증, 데이터센터 운영, 시민 협의체 활동 등을 지원한다.
-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은 연구개발 사업을 총괄하며 실증 연구를 관리·지원하고, 성과물을 스마트시티 시범도시 등에 확산적용 등을 노력할 예정이고,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는 스마트시티 ICT관련 분야의 기술자문을 수행할 예정이다.
- 국토교통부 ·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“스마트시티의 핵심은 도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·분석·처리하는 데이터 관리이며, 도시데이터 기반의 실증도시들은 세계적인 지능형 도시 관리 선도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.” 라고 밝혔다.

- 기획재정부 관계자도 “세계 최고 수준의 스마트시티 선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실증도시 연구사업의 성공적 추진이 필수적으로, 관계부처 간 협조를 통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.”라고 말했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4차산업혁명 위원회 지원단 권지희 사무관(☎02-750-4744),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 박원호 사무관(☎044-201-4844),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스마트도시지원팀 성창원 사무관(☎02-2110-2157), 기획재정부 성석연 사무관(☎02-6050-2534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